

매체환경의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할 아날로그 정신

이창경 | 신구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디지털 출판이 아날로그 출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였다.

정보의 양이나 전달의 신속성만으로 종이책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책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내용에서는

정선된 정보의 질을 지향해야 하고, 외형적인 면에서는 문자 형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당장 책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가 출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종이책 종말론, e-북의 화려한 미래 예측, 온라인 서점의 가격파괴 경쟁 등은 디지털 출판이 몰고온 변화의 결과였고 출판사나 서점, 필자나 독자 등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종이책의 고유한 가치 여전히 중요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법적 발상에 의해 제기됐던, 디지털 출판이 아날로그 출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였음이 분명하다. 아날로그 출판과 디지털 출판이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독서문화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 출판의 장점과 아날로그 출판의 장점을 융합해 '독자 확충'의 대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화사적 전환기에 선 출판의 사명이다.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의 양과 속도, 범위, 쌍방향성 등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책의 위력이 위축된 것만은 틀림없지만, 정보의 양이나 전달의 신속성만으로 종이책의 장점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책은 독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서의 본질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을 체계화하는 한편, 지적 충만함에 종사하는 고전은 여전히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검은 구름을 열고 밝은 빛이 나타나니, 만물은 그 모양을 감출 수 없다. 책을 펴놓고 고금을 생각하노라면 천지도 그 진정을 감출 수 없다" (갈 홍, 《포박자》).

위의 문구는 책의 궁극적인 가치, 독서를 통한 인식의 눈뜸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논리적 사유체계와 조직적인 상상력이 동원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차원은 디지털 출판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저자의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다면적 사유 구조를 지닌 새로운 저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책 이상의 살아 있는 지식과 만나게 되고, 그 황홀한 만남은 자아와 일치되는 감동을 가져다준다. 이는 아날로그 책이 그간 인류에게 행사해온 위대한 힘이었다.

독자 입장 배려하는 질적 추구 강화해야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정제된 활자 체계의 위협을 예견했다. 로버트 쿠버는 《책의 종말》에서 하이퍼텍스트는 '선'의 황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다. "인쇄물과 책으로 대변되어온 지식의 표상은 마침내 그 500년의 화려한 역사를 마감할 시기가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체의 발달만을 염두에 뒀을 뿐, 아날로그 출판의 문화적 특성을 간과한 데서 온 결과다.

그렇지만 종이책도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선된 정보의 질을 지향해야 하고, 외형적인 면에서는 문자 형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기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를 재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인쇄, 제본업계나 제지업계 등 관련업계의 협력체제도 뒷받침돼야 한다.

유통 부분에서, 온라인 서점이 독자에게 싸값으로 서비스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런 생각만으로는 온라인 서점의 미래는 없다. 대량의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고, 독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서점의 강점이다. 온라인 서점은 그 동안 오프라인 서점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 항목을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서점은 그들의 장점인 현장성을 적극 개발해나갈 때,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그 위치가 재정립될 것이다.

정보의 생산·유통·분배 등 모든 면에서 거센 변화가 일고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독자에게 놓일 때, 출판의 진실을 신뢰하는 독자층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고, 이는 다시 출판문화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자가 책을 외면하는 비문화적 토양 아래서는 어느 한 쪽도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